



◀법륜 스님 (사진 왼쪽에서 셋째)이 이라크 바스라 지역 현지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JTS>

“가장 필요한 것은 의약품”

법륜스님, 이라크 답사... 현지인 인터뷰

이라크인들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군 파병 및 주둔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한국군 파병시 의무병을 중심으로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법륜 스님(한국JTS 이사장)의 이라크 답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법륜 스님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요르단 암만과 이라크 바그다드, 나시리아, 바스라, 모술, 티크리트 등을 답사하며 현지인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다. 인터뷰 결과 사담 후세인에 대해 전원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답했고, 미국에 대해서도 10명이 '나쁘다'고 답

해 후세인과 미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표출했다. 외국군에 대해선 필요없다(8). 지금은 필요하다(7)로 나타나 외국군의 파병 및 주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약간 우세함을 보였다. 이라크 전쟁 전과 후를 비교할 때 그래도 지금이 좋다(14)가 월등히 앞서 현재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현했고, 생활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약 10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법륜 스님은 한국군을 파병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파병한다면 △이라크의 통치권이 UN에 이관되고,

UN의 요청으로 평화유지군이나 UN 산하 다국적군으로 파병 △이라크에 합법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이라크 정부의 요청으로 파병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스님은 또 의무병을 최대한 파병하고 시내병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병대에 대해선 국민들의 호응도 없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지역별로 바그다드(8), 모술(7), 바스라(3), 직업별로 무직(4), 상인(3), 주부(3), 운전기사(2), 기술자(2), 학생(2), 의사(1), 수위(1) 순이다. 성별로는 남(14), 여(4)이며, 연령별로는 20대(5), 30대(1), 40대(7), 50대(5), 생활 정도는 하(10), 중(5), 중상(3)이다.

남동우 기자

“사담 후세인 나쁜 사람” 이구동성 한국군 파병 하려면 의무병 중심으로

사찰 소화설비 시연회

9일 조계사 경내서

최근 발생한 전주 구룡사 화재와 계속되는 건조한 겨울 날씨로 인해 사찰 소방방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2월 9일 조계사에서 소화설비 시연회가 열렸다. 조계종 문화부가 주관한 이날 시연회에는 탁연 스님(문화부장)을 비롯한 중단 관계 인사들과 소방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화역 소화약제'를 선보인 (주)파이어엔텍 관계자는 "화재시 소



◊조계사 경내에서 파이어엔텍 관계자와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 등이 소화설비 시연회를 하고 있다.

기본 소화기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생명·평화·상생’ 공감대 모색

18~21일 ‘세계생명문화 포럼’ 열려

지구촌이 당면한 위기 상황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세계생명문화포럼(www.wlcf.or.kr)'이 국내외의 50여명의 석학들이 모인 가운데 12월 18~21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21세기 문명의 전환과 생명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5개 영역에서 토론이 펼쳐지며, 생명·평화·상생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게 된다. 행사 말미에는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선언문도 채택될 예정이다.

행사 첫날에는 리카르도 나바로('지구의 벗' 의장)와 반다나 시바(환경사상가) 등이 김지하 시인과 류승국 전 정신문화원장과 같이 포럼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에는 유진 하그로부 교수(노스 텍사스 대학), 발 플럼우드 교수(호주 국립대), 장파 교수(북경

대) 등이 △생태주의와 생명사상 △생명의 문화적 통로 △공생의 삶과 생명의 경제 △생명문화와 지역개발 계획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문명과 생명문화의 대안을 모색한다. 본 행사와 별도로 김지하 시인, 펠 길리스 수녀 등이 순회 강연회도 개최한다. 또 세계생명문화포럼과 연

관해 국내 다양한 그룹들이 서로 토론하는 '생명문화 지식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노암 촘스키, 프리츠포 카프카, 올리히 벡, 볼프강 작스 등 해외 석학들과 국내 인사들이 행사 주제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벌이는 포럼도 따로 준비중이다. 포럼에 불교계에선 도법 스님(남원 실상사 주지)과 현원 스님(가산 불교문화원 기획실장)이 추진위원으로 참여중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종책평가 108음부즈맨 구성

참여불교재가연대, 중장기 발전전략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가 2단계 중장기(7년) 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초를 마련했다. 재가연대는 12월 13일 종로웨딩문화원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2004년도 단위 사업별 계획을 발표했다. 재가연대 산하 교단자정센터는 총회에서 △교단정책 평가 108 음부즈맨 구성 및 월례 워크숍 진행 △미래불교전략 수립 세미나 개최 △생활수행 교재 배포 프로그램 발굴 △사찰 지역화 전략 개발 △대중

참여 프로그램 모델 개발 등을 단위 사업으로 내놓고, 올 2월경 단계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불교아카데미는 온라인 사업으로 불교와 명상수련에 관한 각종 동영상과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통해 버티컬 포털 사이트(하나의 포털 사이트 내 전문 포털 사이트가 포함)에 있는 형태를 구축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과 운전자를 위한 테이프 시리즈 제작도 오프라인 병행 수위사업으로 정했다. 또한 분야별 최고 지성인 릴레

이 강좌인 '불교의 눈으로 바라본 2020년!'도 준비한다. 국제협력사업으로는 △불가촉천민을 위한 명상센터 및 도서관 지원 △청소년 기숙사 또는 직업훈련을 위한 여건 마련 등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2004년 7~8월 경 인도중서부 불교문화체험 및 인도불교부흥현장 답사를 할 계획이다. 필요한 재정은 국제협력단(KOICA)에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하고, 격월 1회 회원을 대상으로 국내 미발표 해외불교영화 번역 상영도 한다. 재가연대 이영철 사무처장은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7년 2단계 중장기 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자살 외국인 노동자 등 원혼 위로 천도재 잇달아

자살한 외국인노동자, 이라크 전 희생자, 학도병 등의 억울한 한을 달래는 천도재가 잇달아 봉행된다. 태고종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은 12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성북동 태고사에서 이라크 전쟁으로 희생된 영가를 천도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02)745-2030

실천불교전승가회(의장대행 일문)와 불교소수자의 벗은 최근 강제추방으로 자살한 외국인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12월 16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천도재를 봉행한다. (02)725-4277

여주 보림사(주지 성정)는 중학교 3학년 아들과 함께 시신 상태로 6개월간 방치돼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신묘 씨를 위한 49재를 1월 20일 봉행한다. (031)884-1053

한편 영덕 유림사(주지 묘공)는 12월 7일 영덕지역 스님들과 신도 등 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남정면 장사상륙작전 전몰용사 위령탑에서 6.25당시 숨진 학도병 700여명에 대한 위령제와 다비식을 봉행했다. 김원우 기자



국립공원관리 일원화를 토지이용 인센티브제도

운영개선 심포지엄

"국립(국가)공원의 주관부처는 국무총리 산하 또는 대통령직속의 전문관리기관으로 강화해야 한다." 유기준 교수(상지대 관광학부)는 12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

의모임 10주년 기념 '국립공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자연공원 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이 같이 지적했다. 유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국립공원의 재평가' 발제를 통해 주민 및 지역사회관계 개선방안으로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는 장기적으로 국립공원 밖으로 이전할 것 △공원관리방향에 적합한 토지이용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병행 추진 등

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에서 오규곤 교수(호남대 조경학과)는 '자연친화적 국립공원 이용 및 재정 확보 방안' 발제에서 △국립공원 관리 일원화 △용도지구별 자원관리 차별화 △공원탐방 편의서비스 향상 △주민의 자원 이용 규제 △공원시설 정비·복구 및 확충 △훼손지 복원 관리 등을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내놓았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공원관리 및 사업비 대폭 확충 △인건비 증액 △스폰서십 또는 파트너십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강,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런 나눔 콜택시
1588-5532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한의과대학)
2004년 본과생(학사)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중 의 학)	5년	◇자 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대학재학 및 졸업자(만40세이하)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건강진단서 1통(영문) 여권용사진 10매, 주민등록등본 1통
일 반 학 과 (사 법 대)	4년 (편입가능)	

2 학교 소개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 3월이후(국회법통과)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중국 중의사 시험 2002년부터 개방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 등 완비 ▶근입대 연기가능(6년)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12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처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

4 문의처
· 남경중의약대학 한국분교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FAX : 02-511-2028
홈페이지 : www.samhwadea.com
· 中國 南京市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 25-632-2539, FAX : 25-532-0825

2004년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 각 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개 호 복 지 사 과	2년	■분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각 종 단 승 려 포 고 사
불 교 학 과 (교육학 학위가능)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분선 80명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 30세 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 교 미 술 (문화재) 과 (학위수여 가능)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 주민등록등본 1통	
포 교 사 과	2년	■야간 30명	· 반영합관 사진 5매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준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2.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개설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개호복지사과 개설, 남경중의약대학 37명 합격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남경중의약대학 30명 합격
2002. 2. 제 11회 졸업생 배출, 남경중의약대학 37명 합격
2003. 9. 남경 중의약대학 41명 합격

· 진로 중구학위 가능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계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한 의 대), 효장 사범대학 입학 및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12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 본교 교과과 : TEL 02)511-2026~7 FAX 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a.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과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 교육부 학력인정 ◆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기간	모집 과정
고등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남경한 의 대 입학가능, 남경사범대 입학가능

■ 문의처
☎ 02)511-2028
☎ 02)511-1080
☎ 02)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불 교 성 지 고 등 불 교 학 과